



제2의 'BW골드문' 창단식을 선언한 이병욱 배우와 김도향, 장미화 등 연예인 등 기업인들이 새로운 출발과 성공을 위해 파이팅을 회치고 있다. 김지백 기자

배우 이병욱 씨, 비영리 자선단체 재창단 “사랑과 나눔 실천은 계속됩니다”

자선모임 'BW골드문'으로 새출발

탤런트 이병욱 씨가 비영리 자선모임 단체로 운영하는 'BW골드문'이 재탄생했다. BW골드문은 지난 21일 광주시 탄벌동 소재 본프롬테라에서 제2창단식 갖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민 MC 개그맨 노정렬 씨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의 목소리 모창으로 시작 알렸으며, 오프닝 공연에 '안녕하세요'의 가수 장미화 씨의 화려한 열창으로 무대가 펼쳐졌다.

이날 김두관, 송석준 국회의원의 축사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문화예술, 스포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다.

협력사 보정피제이티 이승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 등 어려가지 사회가 매우 위축돼 있는 이때 BW골드문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저도 여러 후원단체를 책임지고 봉사하고 있지만 봉사는 꼭 있어서가 아니다. 사랑과 나눔

의 실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병욱 대표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자선모임 BW골드문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해 사회에 환원하고 그 이윤을 혜택 받은 사람이 또 성공해 사회에 공헌하며 순환되는 구조를 착안해 배우 이병욱 씨가 만든 순수 자선단체명이다.

골드문은 그동안 5회에 걸쳐 유명 연예인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선 골프모임을 개최해 수익금 4000여만 원을 장학금과 광주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해오고 있다.

제2창단식과 함께 골드문은 앞으로 기업인 자선골프대회도 매년 개최해 수익금을 소년소녀가장 등 결손가정 등에 장학금으로 전달해 사회에 공헌할 예정이다.

특히 자선단체 골드문의 최대 협력사(자회사)는 미생물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 종관 회사인 '키친 몬스터 머스'이며, 누전 화재 방지 '초록' 라인도 골드문과 같이 협력사로 함께 하기로 했으며, 이병욱 씨는 이들과 함께 지자체 광고 마케팅 기업 홍보

그리고 영화 제작 등 콘텐츠 사업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병욱 씨는 "기업의 확장과 증폭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기업의 이윤 추구는 반드시 사회에 환원하고 그 이윤을 받은 사람이 또 성공해 사회에 다시 이바지하는 순환의 원리가 되어야 다 함께 웃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며 "앞으로 수저와 젓가락 들림이 있을 때까지 이웃과 함께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회의 한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골드문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협력사는 에바클레르클레르 정회장, 보정피제이티 이승언 회장, 유인파트너스 박강인 회장, 세계경호협회 황호덕 회장, 효젠토목 정경진 대표, 키친 몬스터 문은주 회장, 골프저널 오상욱 대표, 초록 라인 김민원 회장, 밸런스 닥터 박세호 대표, 메디셀 유재환 부사장, 애플라인드 김운수 대표, 신한라이프 정인택 부사장, 주방뱅크 강동원 회장, 생규 컴퍼니 최승길 대표가 함께한다.

김지백 기자

포천교육지원청, '청소년교육의회' 출범

청소년이 지역 교육정책에 직접 참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영숙)은 관내 학생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정책 제안 및 의미 있는 사회참여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포천청소년교육의회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천청소년교육의회는 청소년이 지역 교육 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의 화이 기구이다.

포천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관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모집하고, 자기소개서 및 정책제안서 등을 토대로 총 59명의 의원을 선발, 위촉했다.

선발된 청소년교육의회 의원들 가운데 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들의 소견을 들은 뒤 온라인 투표를 통해 원유은(관인고) 학생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4월 두 차례의 온라인 모임 후 지난 21일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대면 활

동을 실시하였다. '찾아야 할 동해, 지켜야 할 독도'라는 주제로 홍일송 문화유산국민신탁 미주본부장의 특강을 들으며 정책제안 활동의 과정과 그에 따른 사회참여활동 실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오후 시간에는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머쉬멜로우 챌린지 등의 공동체 빌드업 활동을 통해 서로 더욱 친해지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청소년교육의회는 앞으로 6명의 멘토

교사와 함께 교육·환경 상임위원회, 문화·예술 상임위원회, 진로·인권 상임위원회, 자치·안전 상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며, 정책제안 활동을 포함하여 탄소 중립(생태환경), 학생참여예산제 등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천교육지원청 정영숙 교육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의 주인공인 학생들이자 소중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공동체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할 것이며, 앞으로 포천청소년교육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석만 기자



포천청소년교육의회 의원들이 홍일송 문화유산국민신탁 미주본부장의 특강을 듣고 있다. 포천교육지원청 제공

김포 화성고, '지금 꿈이 없어도 괜찮아' 저자 박승호 초청... 작가와의 만남 가져

김포시 하성고등학교가 최근 '지금 꿈이 없어도 괜찮아'의 저자 박승호 씨를 초청해 학생들과 함께 진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특히 작가를 만나기 전 학교는 도서를 미리 구매해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한 덕분에 강연은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진행됐다.

박승호 작가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와 성공을 소개하며 현재 꿈에 대해 고민하

는 학생들에게 좋은 멘토가 됐다.

학생들은 이날만큼 도서 활동을 통해 수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갖기도 했다.

작가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와 무엇에 살아있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교집합이 존재해야 한다고 밝히자 학생 대부분 재능과 꿈에 대한 교집합을 열심히 찾고 이 책에서 방향성을 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답했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나의 새로운 시작에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책이며 강의였다"며 "인생의 방향성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김복례 선생님은 "요즘 꿈 없이 살아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무작정 성적만 오르면 된다는 생각이 팽팡할 때에 진로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나침반 같은 책이고 강의였다"라고 말했다.

천원남 기자



시흥웨이브파크, '미오 코스타 프렌즈데이' 개최

관내 취약계층 250여 명 무료 초청

시흥에 위치한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흥시청소년재단을 통해 시흥시 취약계층 약 250명을 무료 초청하는 '미오 코스타 프렌즈데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미오 코스타 프렌즈데이는 평소 가족들과 여가 활동을 즐길 기회가 적은 시흥시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 및 가족들을 초청해 웨이브파크의 미오 코스타(Mio Costa: '나만의 바다'라는 뜻의 스페인어)에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했다.

웨이브파크의 서브 브랜드인 미오 코스타는 Chill(쉬다, 놀다)과 Relax(휴식을 취하다)의

합성어인 Chillax를 컨셉으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여 휴식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테마 공간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21일 그랜드 오픈한 웨이브파크 미오 코스타에서는 ▲물놀이를 즐긴 후 선베드에서 힐링할 수 있는 미오풀 ▲유아 고객을 위한 최고 수심 0.4m의 키즈풀 ▲액티비티한 수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터틀풀 ▲고객의 체온 유지를 위한 아일랜드 스파를 즐길 수 있다.

웨이브파크 김지환 이사는 "웨이브파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서핑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규 기자

美 오번대학교 레이첼 웨스트 교수 '차광렬 줄기세포상' 9회 수상자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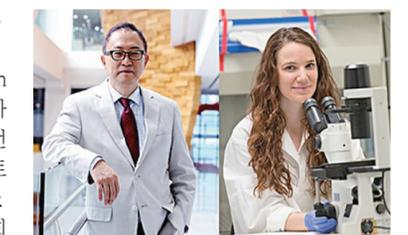
생식의학 발전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차병원원 제77회 미국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ASRM)가 '차광렬 줄기세포상' 9번째 수상자로 미국 오번대학교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및 레이첼 웨스트(Rachel West) 교수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차광렬 줄기세포상'은 미국생식의학회(ASRM)가 난임과 줄기세포, 재생의학 등의 분야에서 차광렬 차병원-바이오그룹 글로벌융합연구소장의 업적과 세계적 공헌을 높이 평가해 지난 2011년 제정한 상이다. 미국생식의학회에서 아시아인에게 최초로 이름을 붙여 제정한 이상은 생식의학 분야에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혁신적인 연구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수여한다.

레이첼 웨스트 교수는 3D 인간 영양막줄기세포를 이용한 태반의 선천면역 반응의 성적 이형성에 대한 연구로 차광렬 줄기세포상을 수상하게 됐다. 배아의 성별이 임신 초기 유산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레이첼 교수는 배아 성별에 따른 선천적인 태반 면역 체계의 차이가 남아 배아의 취약성 및 착상 실패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착상 실패를 겪게 되는 남아 태아의 취약성과 관련된 유전자를 파악하는 데 획기적인 연구결과가 될 것이



차광렬 차병원-바이오그룹 글로벌융합연구소장(사진 왼쪽), '차광렬 줄기세포상' 수상자 레이첼 웨스트(Rachel West) 교수. 차병원 제공

며, 이 발견은 장기적으로 착상 실패 또는 유산을 예측하는 바이오마커 개발과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레이첼 웨스트 교수는 "줄기세포 생식의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인 '차광렬 줄기세포상'을 수상해 학회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매우 영광스럽다"며 "기존에 했던 2차원 기반의 줄기세포 연구를 3차원 모델로 발전시켜 생식의학 연구 분야에 새롭게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차광렬 줄기세포 상은 2013년 미국 국립보건원(NIH) 에런 울프 박사와 코넬대 데이비드 라이크만 박사의 첫 수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9회에 걸쳐 1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김대성 기자



구리참사랑다문화가정센터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밀반찬과 마스크를 마련해 전달했다. 구리시 제공

구리참사랑다문화가정센터, 밀반찬·마스크 전달

구리시 교문1동은 24일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리참사랑다문화가정센터(센터장 김인창)'로부터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해 회원들이 직접 조리한 밀반찬과 마스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구리참사랑다문화가정센터는 밀반찬 4종(오이·버섯·양파·마늘·종장) 83인분과 마스크(50개입) 83박스를 지원했다.

지원받은 물품은 교문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개별 포장해 명예사회복지공

무원 28명을 통해 노인·장애인 1인 가구 53세대에 전달했으며 1인 중장년 가구 30세대에게는 '행복드림 냉장고(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대상자가 방문 수령)에 수납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구리참사랑다문화가정센터 김인창 센터장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